

고대의 죽음



명지대생 강경대(경제-1)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국민적 분노와 투쟁이 촉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강군이 백골단의 쇠 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직후부터 시신이 안치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대에서 '김세진·이재호' 열사 추모식 및 반미구국투쟁선포식'을 하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산하 각 대학 1천5백여 명이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와 27일부터 연세대를 집결하기 시작한 7천여명의 학생·시민들이 오후 6시 '故 강경대열사 시신사수 및 폭력정권 퇴진을 위한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갖고 범국민대회와 함께 지속적인 가두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다음날인 28일 각 학교별로 규탄집회를 가진 각 대학 학생 5만여명이 '故 강경대열사 폭력정권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후 이화여대 김수정(중문-2)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연발 최후탄을 피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팔이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경 광주에서 전남대 박승희(식영-2)양이 분신을 기도해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으며, 전경의 시신당구에 대비해 1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전남대 병원으로 운집했다. 박양의 분신으로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양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대 총학생회주최 집회후 가두진출을 시도하던 전경, 백골단 등이 발동 4층 옥상으로 난입해 고규형, 김평국 학생 등이 추락해 골절상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제주지

투쟁 신호 불발인 열사

분신·규탄집회·노정권 퇴진투쟁 확산

역 민주단체를 중심으로 '폭력정권에 의한 강제추락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속적인 집회·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전경에 의한 시위자들의 사망, 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은 수그러들지 않고, 전경과 경찰은 오히려 연세대 교문앞 시위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평화시위조차 폭력으로 진압했다.

30일 한신대 교수등 재야, 지식인들의 적극 참여와 함께 전 양심선언 전경, 백골단 7명이 '전경·백골단 해체 및 애국전경들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노동절인 5월1일 '메이데이 102주년 기념대회'를 가진 2만여명의 노동자들도 참가해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투쟁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집회후 신촌로터리, 명동 등에서 산발적으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경북 안동대 김영국(민속학-2)군이 교내 규탄집회도중 분신해 대구로 이송, 치료하다가 2일 오후 8시경 사망했다.

학생들의 계속적인 투쟁추구와 노정권 퇴진요구의 분신투쟁이 전개됨에 따라 지난 2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춘천등 전국 각 도시에서 시민·학생들의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있었다.

또한 교수와 양심적 지식인의 철야농성 및 각 학교의 학과별 단식철야농성과 혈서투쟁이 전개됐다. 이에 각 학교별로 가두선전 등 시민들의 호응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활동이 계속되었으며, 지난 4일 범국민대책회의가 시정앞 가두집회를 계획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회가 무산되자 즉각 종료, 명동 등지에서 가두시위를 했다.

폭력실연의 배후조종자 노태우 정권 타도의 합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9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자당 해체를 위한 날로 정했다.

(방현기記者)

이번 설문조사는 회기중, 회경동, 청량리 일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백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40.5%, 30대가 35.9%, 40대가 14.3%, 50대 이후가 7.1%로 나타나 비교적 청·중년층의 분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업 분포는 사무직인 10.5%, 근로직 2.6%, 상업 62.0%, 자영업 7.8%, 기타 21.5%로 나타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편집자註)

이따른 '분신'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국은 극도의 위기속에 '해명'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전경 대다수 국민은 현 상태를 어떻게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모순속에서 발생한 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4일 시민들의 '고 강경대군 살인사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각 항목에 대한 %를 산출한 것으로 편의상 오차변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경대군의 죽음과 연속적으로 발생한 학생들의 분신사건은 현재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경대군 죽음을 앞에 두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강경대군이 죽게된 본질적인 원인을 묻는 문항에 학생들의 지나친 폭력시위 때문이라는 답변은 5.8%로 나타났다. 정부의 과잉진압때문이라는 답변은 18.3%, 전경의 비도덕성에서 연유한다는 답변은 15.6%로 나타났다.

다.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사건이라는 답변이 56.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사건이라는 답변이 56.8%로 높게 나타났다.

강경대군의 죽음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군을 비롯한 경찰 등 막대한 물리력을 동원해 민중과 학생들의 민주화 진출을 막아왔던 정권의 구조적 폭력성에서 기인했다고 파악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6공화국은 출범 초기 민중들의 민주화요구에 의해 여러가지 개혁입법조치를 발표하고 '권위주의'를 청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많은 제처를 써왔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철규, 이태창 열사가 죽어갔고, 수많은 군의 문사가 있었으며, 현대중공업식칼 테러등 정부의 물리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번 사건 또한 이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강경대군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

는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무부장관경질과 백골단 5명 구속으로 족하다'라는 답변이 9.8%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사 정치권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이 29.4%, 노태우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20.2%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권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32.6%로 나타났다.

각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는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무부장관경질과 백골단 5명 구속으로 족하다'라는 답변이 9.8%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사 정치권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이 29.4%, 노태우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20.2%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권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32.6%로 나타났다.

각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실천적인 면을 알아 보자. 정권퇴진시위가 확산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43.7%가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나왔다. 21.5%가 참여를 통하여 정권퇴진에 한 몫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시위를 해봤자 사회가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5.4% 나왔다. 관계가 없으므로 관심없다는 답변이 3.92%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나이가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야권의 주장대로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18.9%, 정권 축출과 함께 과도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답변이 9.15%로 나타났다. 구타로 인한 죽음은 누군가의 실수만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소수집권자들의 불법행동은 인정되고 역사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범법행위가 되는 현실, 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비판해낼 수 있는 토론의 장 역시 한국사의 역사줄기 속에서는 표류할 수 밖에 없었다.

한 사회가 커다란 이유로 인해 동요가 일어날때면 으레 옛 언론의 논조는 권력층이나 집권층의 위기를 무마시키는데 급급했다. 하나의 사건, 이슈를 사회적 제 문제에 관한 한결같은 언론의 목소리는 다수의 합성을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따른 학우들의 투쟁은 역사의 발전과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를 이루었다.

이에대한 언론의 정치권의 위기해소정책은 "학생들의 지나친 생명경시" 행동내지는 "자제만이 현 시국을 해결한다"고 한다. 또한 "미안하다"라는 문구가 낯설지 않은 일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에 불과하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의 목소리는 바로 현정권의 슬책은 더이상 허용치 않은 강고한 의지에 따른다.

우리는 87년의 교훈을 갖고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금 생각해볼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역사에서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세는 한 마디로 언제 폭 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내 체되어 있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시한폭탄'의 초침을 움직이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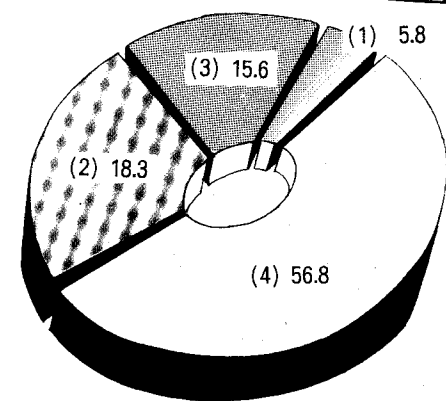
단추는 다름아닌 강경대군의 죽음과 이후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3명의 분신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시민들을 폭탄에 든 화약이라고 규정했을때 앞으로 '이 폭탄이 향후 정세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는 시민들의 참여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민들의 현실참여욕구와 정권퇴진의 여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운동선영의 파제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침묵하던 대다수의 내면적 욕구를 발사시켜 표현화시켜 내는 것이 바로 그 파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가 아닐까.

(여론조사부)

설문조사-故강경대 열사 죽음에 대한 시민인식도

고양된 시위 참여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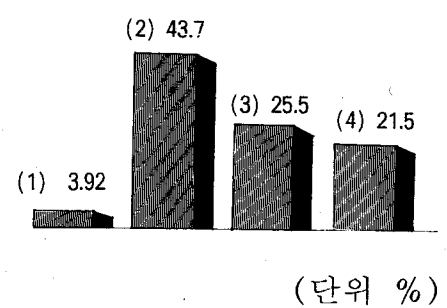


◇강경대군이 죽게된 본질적인 원인은?

- (1) 학생들의 지나친 폭력시위 때문이다.
- (2) 정부의 과잉진압 때문이다.
- (3) 전경의 비도덕성 때문이다.
- (4) 현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사건이다.

◇정권퇴진시위가 확산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 (1) 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관심없다.
- (2)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 (3) 시위를 해봤자 사회가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4) 참여를 통하여 정권퇴진에 한 몫을 하겠다.



(단위 %)

퇴진욕구불구 구체적 방안 없어 구조적 폭력, 죽음의 본질적 요인

있듯이 시민들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사고를 결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인 놈보다 시킨놈이 잘못됐다'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문항인 '강경대군 사망과 관련 2명의 학생 분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행동이라는 답변이 6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기 위해 정권퇴진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답변이 19.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의 지나친 생명경시풍조가 빚어낸 불행이라는 답변이 9.1%, 정부의 탄압에 의한 희생물이 있다는 답변이 7.1%로 나타났다.

강경대군의 죽음 이후 전남대, 안동대, 경원대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분신했다. 그들의 죽음은 '열사'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정당한

있는 윤용상의 오류만 시정한다면 굳이 해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15.0%, 본래의 규정대로 대간찰작전에만 투입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3.9%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으로서만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부의 탄압도구이므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47.0%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백골단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에 반공이데올로기와 체제안정적인 상황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높게 나타남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본질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었음도 일정부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항에서는 시민들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인식도를 알 수 있었다. 이제 시민들의

시민들의 현실참여의지는 매우 높다 하겠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 현시기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해줄 수 있는 뚜렷한 세력이 부재하다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침묵하는 대다수'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다 음 문항의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35.9%가 선거시기까지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고 26.1%가 정권퇴진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



*극동정유의 마스코트 백곰

크린에너지를 추구하는 극동정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총명하고 청정한 동물인 북극의 백곰을 형상화,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및 친근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극동정유 정자의 책상머리에 이 팽이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팽이 — 이 팽이그림은 그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8년전 국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시절, 극동정유 부산공장을 세울때부터 이 그림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금사정은 말할 수 없이 쪼달리고 외국자관도 거의 조달이 안되는 상태에서 순수한 우리자본만으로 출발한 공장 건립은 어떤 자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산업 민영화를 처음으로 주도하는 회사의 창립멤버라는 보람으로 이겨내기엔 난관도 대단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자체기술과 인력으로 해결해가는 와중에 토사가 무너져 인부가 다치고 풍랑으로 하역중의 자재가 떠내려가 모두가 실의에 잠겼을 때,

그는 말없이 책상머리에 이 팽이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팽이는 그에게 절세없이 채찍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쳐라, 쳐라, 끝까지 쳐라!”

이제는 안정감있게 돌아가는 팽이처럼 회사의 기반이 탄탄해진 지금, 정자는 자신의 무기력과 나태를 채찍질한 것은 철혈재상 비스파르크의 이 한마디였다고 털어 놓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일하라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극동정유주식회사

본사: 서울특별시 중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대표전화: 735-6300
사서함 C.P.O. 269 / TELE: K26245, K33112 / FAX: 733-5481
자매회사: 극동도시기상(주), 세일석유(주)